

신어의 탄생, 사회와 문화를 담다

정한대로
가천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1. 머리말

매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신어 자료집을 펼쳐 보면 무척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각 신어의 뜻풀이와 용례를 읽어 내려가면서, 과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 최초의 어느 누군가는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를 결합하고 대치하여 이들 단어를 만들었을 것이며, 각 단어는 해당 언어 공동체(speech community)에서 약속된 의미로 쓰이며 그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이며, 이후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신어(neologism)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며 결국 국립국어원 자료집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당장 나에게서는 낯선 단어일지 몰라도 어느 집단의 누군가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단어들. 신어를 경험하며 그의 미와 용법을 처음 접하는 순간 개인의 어휘부(lexicon) 체계 변화를 촉발하는 작용들. 신어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의 언어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고 퍼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신어는 우리의 삶을 채워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어휘 생산 및 언어 질서 파괴 등의 문제를 부각하며 신어의 형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새로운 단어의 급격한 출현은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세대·성별·

직업을 기준으로 한 집단 간의 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언어 현실을 무작정 무시할 수만은 없지만, 사실상 신어로 인한 낯설과 불편함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인류 문화의 발전과 변화 속에서 새로운 대상과 개념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그 과정 초기에 각 공동체 간(세대 간, 국가 간, 종교 간) 소통과 화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들이 일부 동반되어 온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디지털화와 인터넷 기술의 개발,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비단 언어뿐만 아니라 과학과 문화의 급진적 변화는 새로운 개념을 꾸준히 양산하면서 우리를 낯선 환경으로 이끈다.

100여 년 전 한국인들에게 ‘기차’와 ‘전화기’ 역시 매우 낯선 대상이었다. ‘불을 피우고 증기를 내뿜으며 바퀴를 굴리는 차’,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내 말과 생각을 전달하는 기계’를 처음 본 한국어 화자들은 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하였다. 그중 일부는 각자 나름의 단어를 만들어 이를 명명(naming)하였다.

- (1) 가. 룬거(輪車), 증기차(蒸氣車), 화룬거(火輪車), 화룬차(火輪車), 화차(火車)
나. 원어기(遠語機), 전어기(傳語機), 전어통(傳語筒), 전의기(傳意機)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1)의 단어가 무척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100여 년 전 문헌에서는 이들 단어가 두루 확인된다(김형철, 1990: 190, 227). 지금은 우리가 ‘기차(汽車)’와 ‘전화기(電話機)’로 공인화(institutionalization)된 단어를 쓰고 있지만, 두 대상이 처음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을 당시에는 낯설고 어색한 (1)의 다양한 표현들이 공존하였다. 전혀 들어 보지 못한 대상과 개념, 그리고 그로 인한 새로운 단어들. 이에 관한 사전 지식 없이는 도저히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1)의 신어가 등장한 것이다. 결국은 (1)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오늘날 ‘기차’, ‘전화기’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 신어를 통해 ‘증기와 화력으로 대표되는 기차의 모습’, ‘말과 뜻을 전하는

전화기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즉, 신어를 매개로 시간의 흐름을 읽고 과거 사회의 모습과 문화적 맥락을 탐색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신어의 속성에 주목한다면, 신어는 당대의 공시적 실상을 보여 주는 사진첩 속 생생한 '사진'과도 같다(정한데로, 2015다: 5).

이 글은 신어의 형성 문제를 밀도 있게 살피며, 형성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신어들의 특징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신어의 탄생은 단순히 잠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마는 유행 차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신어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신어의 의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2. 대상과 개념의 표현, 그리고 신어의 형성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신어 형성에 관여하는 것일까? 새로운 단어의 등장 은 형식적·의미적 차원에서 고루 우리의 관심을 끈다. 대개는 낯선 형태의 등장, 그리고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생소한 의미에 주목하며 각 신어의 출현, 즉 결과적 차원에서 신어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과정적 차원에서 신어 형성에 접근해 본다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신어를 둘러싼 3가지 측면, '화자의 의도', '맥락의 관여', '언중의 승인'을 주제로 신어의 탄생을 살피고자 한다.

2.1. 화자의 의도

화자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단어의 형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는 특정 상황에서 화자가 이름 지은, 즉 명명 과정을 거쳐 세상에 등장한다. 화자가 그것을 의식적(conscious)으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상관없이, 단어는 화자가 목표한 대상을 부르하고자 하는

의도가 동기화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 새로운 단어의 형성은 이를 위한 대상이나 개념의 출현이 전제된다.

(1)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한자어 ‘기차’와 ‘전화기’에 대응되는 다양한 단어들 떠올려 보자. 19세기 말 당시 한국 사회에 새롭게 도입된 대상을 표현하고자 사람들은 여러 유형의 형태를 활용하여 (1)의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서도 화자의 초점화(focusing) 방식에 따라 ‘증기(蒸氣), 화(火), 룬(輪), ‘원(遠), 전(傳), 어(語), 의(意)’ 등의 상이한 형태가 역동적으로 단어를 구성하였고, 이후 (1가, 1나)의 각 단어들은 일련의 유의어 경쟁을 거치며 언중들의 선택을 통해 ‘기차’와 ‘전화기’라는 대표 단어로 일반화되었다.

이렇듯 특정 사회 내부로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이 유입될 때, 언중들은 이를 명명하고자 하는 동기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양상은 비교적 최근에도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외래어를 통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2) 가. 내비게이션, 샴푸, 컴퓨터, 프린터, 호텔

나. 뉴스, 스케줄, 컨디션, 콤플렉스, 크리스마스

(2)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다. 이는 외래어를 직접 수용한 경우로, 이들 역시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대상이나 개념을 표현할 목적으로 출현하여 한때 신어의 지위에 있었던 것들이다. (2가)의 구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2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도 확인된다. 이들 단어는 국외로부터 현대 한국 사회에 도입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 그중에서도 영어가 깊이 관여한 현 사회의 풍경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앞서 관찰한 (1)의 100여 년 전 한자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3) 모닝콜, 백미러, 비닐하우스, 핸드폰

외래어 중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복합어도 있다. (3)은 한국에서만 관찰되는 자생적인 외래어 복합어로서 이들은 한국어 공동체 내부에서 형성된 단어이기에 단순한 차용이 아닌, 한국어 화자의 명명을 통해 탄생한 결과이다. (2)와 같이 외래어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나, (3)과 같이 능동적으로 한국어 화자들이 만들어 낸 외래어의 경우 모두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대상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단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신어의 형태론적 특징을 살펴보면 화자가 구현해 내는 단어 형성의 방식이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05년 신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4) 가. 달팽이족, 야식증, 추접남, 캡처꾼, 평양둥이

나. 갓난로, 낚시글, 매미춤, 미끼정치, 손베개, 쌀캔디

다. 걸기돈, 뒤집음말, 손펼침막, 파일보기폰, 털기춤

접미사 ‘-족(族), -증(症), -남(男), -꾼, -둥이’가 결합한 (4가)의 파생어는 물론이고,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4나)의 합성어도 두루 관찰된다. (4다)는 동사에 접사 또는 어미가 결합한 구성이 다시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룬 예들이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결합 외에도 훨씬 다양한 유형의 단어가 관찰된다.¹

¹ 노풍당당: 노인의 풍채가 당당함을 ‘위풍당당’에 빗대어 이르는 말.

밥터디(←밥+study): 밥을 먹으면서 그날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

소변인(笑辯人): 웃음과 유머가 있는 대변인(代辯人).

일석양득(←石兩得): ‘일석이조’와 ‘일거양득’을 합한 말로, 한 가지를 함으로써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의 말.

썸마펠라(←아줌마+cinderella):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기혼 여성을 이르는 말.

통플스테이(←통일+temple stay): 절에서 사찰 생활을 체험하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일.

- (5) 가. 노풍당당, 밥터디, 쌀파라치, 소변인(笑辯人)
 나. 일석양득, 줌마렐라, 톱플스테이, 흥가포르
 다. 검경언(檢經言), 경활률(經活率), 정랭(政冷), 취뽀

(5가)는 ‘위풍당당, 스티디, 파파라치, 대변인’의 각 첫 음절이 ‘노(老), 밥, 쌀, 소(笑)’의 형태로 대치된 것이다.² (5나)는 ‘일석이조, 일거양득’, ‘아줌마, 신데렐라’, ‘통일, 톱플스테이’, ‘홍콩, 싱가포르’ 구성을 혼성(blending)하여 신어를 형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화자가 의도한 구성 내 일부 음절만을 추출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 (5다)의 예도 확인된다.

한편, 기존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음으로써 신어의 지위를 획득한 사례도 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2003년과 2004년에 발표한 신어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³

- (6) 가. 님, 도토리, 방법(方法), 작업(作業), 퍼가다
 나. 공청회(空聽會), 사오정(四五停), 삼일절(三一絶), 주부(主夫)

흥가포르(←홍콩+싱가포르): 홍콩과 싱가포르를 아울러 이르는 말.

검경언(檢經言): 검찰, 경제계, 언론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경활률(經活率): ‘경제 활동 참가율’을 줄여 이르는 말.

정랭(政冷): 정치적으로 냉랭함.

취뽀(←취업+뽀개-): 취업 준비에 유용한 동아리. 커뮤니티 사이트 ‘취업 뽀개기’에서 유래한다.

² 연구자에 따라서는 (5가)의 구성을 대치가 아닌 결합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결합으로 보는 경우는 일부 단위를 절단한 후에 구성 간 결합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³ 님: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2003)
 도토리: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싸이월드(cyworld)’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때 쓰는 사이버 머니. (2004)
 방법(方法): 인터넷상에서, 호되게 꾸지람을 주거나 벌을 주는 일. (2004)
 작업(作業): 남자가 여자를 피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2003)
 퍼가다: 인터넷 따위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옮겨 다른 곳이 실음. (2003)
 공청회(空聽會):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공청회(公聽會)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04)
 사오정(四五停): ‘45세가 정년(停年)’이라는 말로, 정년이 아닌데도 직장에서 내몰리는 40대 직장인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03)
 삼일절(三一絶): ‘31세면 절망’이라는 뜻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직장인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04)
 주부(主夫):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꾸려 가는 남자. ‘주부(主婦)’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004)

(6)에서 형태상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미 실재하던 단어가 다른 맥락에서 달리 쓰이며 신어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6가)는 인터넷 등 특정 언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확산된 것이며, (6나)는 기존 단어에 동음이의 한자를 대치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가한 것으로서 한글 형태만 본다면 기존 단어와 차이 없이 동일한 모습을 유지한다. 새로운 형태가 생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화자의 의도에 의해 전에 없던 새로운 의미의 신어가 탄생한 것이 분명하다.

2.2. 맥락의 관여

단어는 각 시기의 사회·문화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한때 증기(蒸氣)로 움직이던 ‘기차(汽車)’가 여전히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도서, 신문 등 시기별로 인쇄된 문헌 자료에 수록된 신어에서 당시 사회 모습을 관찰 가능한데, 화자의 의도는 곧 화자가 살던 시대의 맥락을 포함하여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시기별로 신어에 담겨 있는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시 10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라 할지라도 매 시기 낯선 위치에서 삶을 시작한 신어들을 두루 관찰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문헌에서 확인되는 대상이다.

- (7) 가. 교사(教師), 교원(教員), 선생(先生), 학교(學校), 학생(學生)
 나. 우신(郵便), 우편(郵便), 우표(郵票), 전보(電報), 전신(電信)
 다. 간병(看病), 병원(病院), 약국(藥局), 의사(醫師), 의원(醫院)

김형철(1990: 188~197)에 제시된 (7)의 신어에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교육·통신·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대상과 개념들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각 대상을 지시하기 위한 명명의 동기

가 실현된 결과로 (7)과 같은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중에는 ‘교원, 학교, 우편, 전보, 병원’ 등 일본 한자어의 영향을 입은 예도 다수 확인되는데(이한섭, 2014), 이 역시 시대적 특징을 드러낸다.

- (8) 가. 독후감(讀後感), 반혁명(反革命), 일반화(一般化), 초자연(超自然)
나. 농민 계급(農民階級), 동화 작용(同化作用), 봉건주의(封建主義), 사회 문제(社會問題), 자연 과학(自然科學)

과생과 합성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표현해 낸 (8)의 복합어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송민, 2000: 28 참고). 서양 학문의 유입, 격변하던 사회적·정치적 분위기 등 각 신어로부터 그 시기의 공시적 양상이 포착된다.⁴

- (9) 가. 공황(恐慌), 법인(法人), 분업(分業), 야당(野黨), 여론(輿論)
나. 디자인(design), 독터-(doctor), 드라마(drama), 리얼(real), 모-던(modern)

1934년에 발행된 《신어사전》에 등장하는 (9)의 신어도 주목된다.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서양 체계의 개념이 한국 사회로 수용되면서 이를 지칭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 필요하였다. 적지 않은 한자어가 일본을 거쳐 한국어 공동체로 유입되었으며, (9나)처럼 다수의 외래어도 당시 신어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 (10) 가. 균일가, 달동네, 복부인, 열대야, 유전 공학, 지구촌, 할인가, 해결사
나. 바바리코트, 워크홀릭, 유니섹스, 텔레페서, 폴리페서

⁴ 송철의 외(2007)은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발표된 소설에서 당시의 문물 수용 양상을 보여 주는 어휘들을 ‘건축, 경제, 경찰, 과학’ 등 26개의 세부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바 있다.

1980년대 초 신문 지면에 등장하는 (10)의 신어도 이전과 다른 방식의 개념이 새로 출현한 결과이다.⁵ 경제(균일가, 할인가, 복부인), 사회(달동네, 지구촌, 열대야), 과학(유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신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문화 및 부동산 경제의 확대, 산업화 및 세계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 과학 기술의 고도화 등 개별 신어가 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10나)의 외래어 신어도 당시 한국 사회를 이해할 만한 단서를 제공한다.

- (11) 기러기 아빠, 라섹, 리클라이너, 모바일 게임, 버블티, 서클렌즈, 스팸 메시지, 알박기, 애견 카페, 오타쿠, 외계어, 이러닝, 취집, 카파라치, 컬러링, 템플 스테이, 파티 플래너

(11)의 2002년 국립국어원 신어를 통해서도 당시 사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⁶ 지금은 비교적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20여 년 전에 갓 등장한 이들 신어로부터 과거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자녀 유학의 활성화, 이동통신 기술 개발, 애견 문화 확산 등 각 신어의 출현은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담은 채 한국인들의 시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한다.⁷

- (12) 가. 갠톡, 멕스타그램, 셀피, 여친짤, 임짹, 페메, 해시 태그
나. 감튀, 남사친, 뇌섹남, 맛저, 세젤에, 심멧, 애유엄브, 피껴숏

5 이들은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자료를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신조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한 결과이다.

6 알박기: 주요한 택지의 일부를 남보다 앞서서 사 두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취집(←취업+시집): 여성들이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이 매우 어렵게 되자 취업을 포기하고 그 대신 시집가는 일.

7 2000년대 주요 일간지의 신어 명사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을 탐색한 김일환(2014)도 참고된다.

2014년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된 누리 소통망(SNS) 문화가 반영된(12가)의 관련 단어가 다수 등장한다.⁸ 특히 최근에는 각 어절의 첫 음절을 결합한 방식인(12나)의 줄임 표현이 이전과 비교할 때 유형 및 출현 빈도 차원에서 모두 높은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현대 한국어 사용자들의 신어 형성 문화를 보여 주는 예로 여겨진다.

2.3. 언중의 승인

누군가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고 해서, 형성과 동시에 그 단어가 곧바로 신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특정 화자 혼자만이 쓰는 개인어(idiolect)는 그를 둘러싼 사회 전체로 확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자의 명명을 통해 탄생한 단어가 신어로 자리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언중의 승인, 즉 ‘공인화’에 달려 있다.

신어는 언어 공동체의 공인화를 전제한다. 그렇다면 언어 공동체의 외연과 범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Hohenhaus, 2005: 360~362, 정한테로, 2015나: 241~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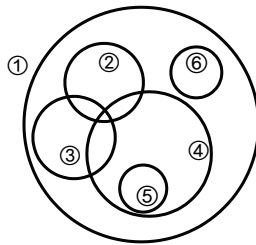
(13) 가. 두 사람(couples)

- 나. 한 가족, 소수 집단(가까운 직장 동료, 탐험 원정대의 작은 팀원 등)
- 다. 다수 집단((전문 용어를 쓰는) 전문 직업인, (은어를 쓰는) 특정 세대)
- 라. 특정 언어를 쓰는 언어 공동체(the speech community of a language)

⁸ 갠톡(←개인+카카오톡): ‘개인톡’의 준말.
셀피(selfie):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 일. 또는 그렇게 찍은 사진. =셀카.
여친짤: 메신저 프로필에 올리는 여자 사진.
읽씹: 문자 메시지를 읽고 나서 답장을 하지 않는 행위.
페메: ‘페이스북 메시지’를 줄여 이르는 말.
감튀: 감자를 썰어서 기름에 튀겨 낸 음식. =감자튀김.
맛저: ‘맛있는 저녁’을 줄여 이르는 말.
애유엄브: ‘애들은 유치원, 엄마는 브런치’를 줄여 이르는 말.

흔히 신어라고 하면 (13라)와 같이 특정 언어를 쓰는 언어 공동체 전반에 새롭게 도입된 단어를 생각하기 쉽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자료집 내 신어는 신문, 방송 등 언론에 노출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3라)의 수준에서 인정되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13다)와 같이 특정 세대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로 등장한 단어도 신어의 범주에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 내 특정 집단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들이 그 영역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다수 확인된다. 이에 (13다)와 (13라)의 경계는 사실상 점점 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듯하다. 언론 자료, 국립국어원과 같은 공식 기관의 발표 여부와 별개로 온라인에서 시작된 신어들이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는 모습이다.

(13나)와 같은 소수 집단 역시 언어 공동체를 이룬다. 따라서 가족 간이나 일부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 쓰이기 시작한다면, 이 역시 신어로 볼 수 있다. 심지어 (13가)처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 한 명의 화자와 이를 공유하는 단 하나의 청자만 있어도, 그 단어 또한 신어의 범위에 포함된다.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 역시 2명으로 구성된 언어 공동체 내에서 분명 승인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의 언어 공동체는 위 그림처럼 다양한 층위에서 복잡하게 구성된다(정한테로, 2015나: 242). 한 명의 개인은 소속 집단, 사용 언어권에 따라

서 매우 입체적인 방식으로 언어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①은 (13라)와 같은 특정 언어 전반에 걸친 넓은 수준의 영역을 포괄하는 반면, ⑥은 (13가)처럼 극도로 한정된 범위의 언어 공동체에 대응한다. 나에게 낯선 단어라 할지라도 다른 집단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미 공인화된 신어일 수 있으며, 그와 반대의 일을 겪는 것 역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결국 신어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그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즉 언어 공동체이다. 시기별 사회·문화적 맥락을 품은 채 화자의 의도를 통해 명명된 단어는 그 의미와 용법을 공감하는 언중들의 승인을 통해 비로소 신어로 완성된다.

언중의 승인은 곧 언중의 선호(preference)와 직접적으로 관련한다. 새로 등장한 단어를 언중들이 수용하여 높은 빈도로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정적인 신어의 지위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미 신어의 지위에 오른 단어라 할지라도 이 역시 언중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위상을 얻기 마련이다. 즉, 잠시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지고 마는, 일종의 유행어 정도로 취급받을 여지가 많다. 신어의 지위를 언어 공동체가 결정하듯이, 이후 신어가 《표준국어대사전》 등재어가 되는 과정에서도 언중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3. 맺음말

최근에는 한글의 형태적 변이(variation)를 활용한, 이른바 ‘야민정음’이라고 불리는 단어들도 관찰된다. (6)과는 정반대로 의미적 차이 없이 형태적 차이만을 활용한 방식이다.⁹

⁹ (14)를 신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언어 공동체에서 이들이 충분히 공인화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14)도 신어로 보는 입장에 있다.

- (14) 가. 네넴핀, 멍멍이, 세종머양, 커엽다, 팡주팡역시
 나. 곤농, 곰국, 톰곡윽늬, 표멍름
 다. 뿔, 뽀, 꺾밥

글자 형태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비빔면, 멍멍이, 세종대왕, 귀엽다, 팡주팡역시’를 표현한 (14가), 180도 회전을 통해 ‘육군, 논문, 폭풍눈물, 물음표’를 표현한 (14나), 글자 압축을 통해 ‘돌돌, 부부, 굴국밥’을 표현해 낸 (14다)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앞서 제시한 신어들과 달리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을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형식의 일탈로 문자적 재미를 시도하고자 한 ‘화자의 의도’, 이러한 언어유희를 공유하는 젊은 세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이를 수용·확산하고 있는 ‘언어 공동체’의 역할을 (14)에서도 두루 포착할 수 있다.

꾸준히 만들어지는 신어 가운데 대다수는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곧 사라진다.¹⁰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그 쓰임이 지속되지 못하면 신어는 결국 스스로의 삶을 다하고 만다. 이렇게 보면 신어의 출현 자체를 크게 문제시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떠한 이유로 이들 신어가 등장하였으며, 그 신어가 지금 우리의 어떠한 사회·문화적 모습과 맥락을 담고 있는지 관찰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¹⁰ 연구자마다의 연구 대상과 방법, 조사 기간 및 정착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한다. 남길임(2015)에서는 27% 정도의 신어가 안정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정한데로(2015라)에서는 12%, 정한데로(2017)에서는 20%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김일환(2014), “2000년대 주요 일간지의 신어 명사에 대하여”, 《민족문화 연구》 6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9~82쪽.
- 김형철(1990),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남길임(2015),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 2005·2006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글》 310, 한글학회, 205~233쪽.
- 남길임·이수진(2016), 《신어》,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상진(2011), “1920~1930년대 대중잡지의 어휘소개에 대하여: 현황과 명칭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8,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29~173쪽.
- 송민(1989), “개화기 신문명어휘의 성립과정”, 《어문학논총》 8,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69~88쪽.
- 송민(2000), “개화기 국어에 나타나는 신문명 어휘”, 《어문학논총》 19,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5~57쪽.
- 송민(2006), “20세기 초기의 신어”,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19~30쪽.
- 송철의·이현희·이용·양정호·서형국·이지영(2007), 《일제 식민지 시기의 어휘: 어휘를 통해 본 문물의 수용 양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한섭(2014),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정한테로(2015가), “단어 형성 과정의 개념화와 언어화: 19세기 말~20세기 초 자료의 의의”, 《언어와 정보 사회》 2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158쪽.
- 정한테로(2015나), “단어의 공인화에 관한 고찰”, 《국어학》 74, 국어학회, 233~266쪽.
- 정한테로(2015다), “단어의 삶을 관찰하다”, 《어문생활》 212, 한국어문화, 4~5쪽.
- 정한테로(2015라), “신어의 형성과 빈도 변화에 관한 일고찰: 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글》 310, 한글학회, 171~204쪽.
- 정한테로(2017), “‘신어의 삶’에 관한 탐색: 2002년~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83, 국어학회, 119~152쪽.

- 정한테로(2019), “단어가 품은 삶의 이야기”, 《어문생활》 255, 한국어문화, 4~5쪽.
- 한림과학원 편(2010), 《한국 근대 신어 사전: 現代新語釋義·新語事典》, 선인.
- Hohenhaus, P.(2005), “Lexic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Štekauer, P. & Lieber, R.(eds.), 《Handbook of Word-Formation》, Springer, 353~373.